

두 개의 조선, 혁명과 전쟁 사이

- 남궁만 <홍경래>(1947)의 전후

양근애*

<차례>

1. 홍경래의 난 對 평안도 농민전쟁
2. '혁명가 홍경래'의 근대적 발견
3. 남궁만의 <홍경래>와 해방기 북한 역사극
4. 혁명, 전쟁 그리고 새로운 국가

<국문초록>

해방기 희곡 <홍경래>는 남궁만이 쓴 유일한 역사극으로 해방 이후의 역사적 전망을 과거인물의 혁명성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본고는 '홍경래'라는 인물과 '홍경래의 난'이라는 사건이 근대 이후에 재발견/재해석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특정한 시대적 맥락에 따른 역사적 인물 및 사건의 소환 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홍경래'는 주로 홍경래 난의 근거지이기도 한 평안도와 서북지역 출신 작가들에 의해 재현되었으며 남궁만 역시 평안도 출신으로 해방기에 '홍경래'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창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남궁만의 <홍경래>는 아직 북한의 체제가 공고화되기 이전 시점에 재현된 역사극으로 1931년 동아일보에 연재된 현상윤의 『홍경래전』을 참고로 하는 등 역사적 사건의 고증에 힘쓴 흔적이 드러난다. 해방기 역사극은 일제 강점기와는 달리 항쟁과 투쟁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홍경래'가 지닌 혁명가적인 면모 역시 해방기 좌익 계열 연극인들의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으로 부각된다. 남궁만의 <홍경래>는 이순신과 같은 영웅적 인물이 아니라 실패한 혁명가라는 점에서 또 다른 낭만적 이상이 발견되며 이는 1947년 이후 본격화된 북한문화의 '고상한 리얼리즘'의 전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6.25 전쟁이후 홍경래에 대한 재현이 민중혁명을 위한 영웅성의 과도한 노출로 기울어지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참조보다 상상적인 허구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희곡 <홍경래>에는 역사를 해석하는 객관적인 시선과 그를 통한 새국가 건설의 이상을 담지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홍경래, 남궁만, 평안도, 서북지역, 현상윤, 해방기 역사극, 북한연극, 낭만적 이상

1. '홍경래의 난' 對 '평안도 농민전쟁'

1811년 12월 18일, 평안도 가산 다북동에서 홍경래의 무리가 출정식을 올리고 진격한 후 이듬해 4월 19일 정주성에서 패퇴할 때까지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홍경래의 난'이라고 부른다. 흔히 임궫정, 전봉준, 이순신 등과 함께 '의적', '영웅', '혁명가' 등으로 묘사되는 홍경래는 난세에 필요한 영웅적 인물로 회자되곤 한다. 그러나 홍경래의 난이 평정된 이후 당시 순조가 내린 교문에는 '벌레, 악, 협중(脅從), 흉계, 무퇴배'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홍경래의 난을 '흉역의 난'으로 규정하고 있다.¹⁾ 순조는 이 난의 원인이 흉년이 든 것에 있다고 하면서 홍경래를 비롯한 서북 지역 각층의 인물까지도 무퇴배로 매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의 정치경제적 모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순조 당시의 홍경래는 역적의 우두머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당시 조정의 관점에서는 체제를 위협하고 반역을 일삼은 홍경래 일당을 처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앉은 순조대의 조선은 평탄한 날이 별로 없었다. 기묘과 홍수 등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했고 전염병이 크게 번져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였고 이 때문에 도처에서 크고 작은 민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삼정(三政)의 문란 등 조선후기의 누적된 사회 모순 위에 관직을 사고팔던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폐단으로 가난한 선비들은 과거에 합격하기도 어려웠고 또 과거에 급제하여도 벼슬을 얻기가 힘들었다. 반면 매관매직으로 벼슬

1) 순조실록 15권, 12년(1812 임신) 4월 28일(경오) '적을 평정한 일에 대한 교문' "역적 홍경래(洪景來)는 본디 벌레같은 미물로 오랫동안 효경(梟獍)의 악을 쌓아왔으며, 간활(奸猾)한 향리·장교와 체결(締結)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영 아래의 보잘것없는 아전부터 강도나 유민으로 협중(脅從)이 된 자들까지 심지어 평서 원수(平西元帥)라 일컬었던 것이다. 하늘의 법을 무시하고, 땅에 금을 그어 참위(讖緯)의 요언(妖言)을 선창(先倡)하였고, 고을 수령을 죽이고 인부(印符)를 빼앗았으니, 단지 빼앗아 웅거할 흉계로 횡산(橫山)·발해(渤海)에 무퇴배들을 불리고자 했을 뿐만이 아니라, 녹림(綠林)과 황건(黃巾)이 다시 도(道)가 있는 세상에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을 얻은 관리들은 전세(田稅)나 군역(軍役), 환곡(還穀)을 동원하여 백성을 착취하였고 백성들은 자포자기적인 난동으로 억압에 저항했다.²⁾

홍경래의 난은 1862년 진주민란 및 농민항쟁, 1894년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조선후기 민중 봉기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홍경래의 난은 진주민란과 동학농민운동처럼 농민을 주축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농민전쟁이 아니라 몰락한 양반의 중앙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는 평안도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평안도는 토착 양반층의 형성이 어려웠고 18세기 중엽에는 중국과의 무역이나 수공업, 광산경영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신항층의 등장으로 수령권과 부유층 간의 대립이 일어난 지역이었다.³⁾ 홍경래의 난은 조선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저항지식인'과 壯士層의 역량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안도에서는 한층 중요한 사회적 유산으로 계승된다.⁴⁾ 17, 18세기 평안도 지배층에 대한 차별은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에 대한 차별이었으며, 법 규정이 아니라 운영상의 차별이었다. 관서지역을 포함하여 서북인⁵⁾에 대한 차별은 여러 차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평안도의 경우 17세기 후반부터 그동안 독자적으로 운영되던 재정이 중앙 재정에 통합되어 나가고 정조 때에 이르러서는 왕권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의 비용이 평안도에서 조달되었던, 경제적인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⁶⁾ 요컨대, 홍경래의 난은 평안도에 대한 차별, 즉 지역

지배층에 대한 차별의 문제와 조선후기 성리학적 사회 질서 형성의 문제, 그리고 기층민에 대한 경제적인 억압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간 정치적 사건이었다.

남한에서 이 사건을 부르는 방식에는 주동자인 '홍경래'와 (민)란의 성격을 강조하는 관점이 들어가 있다. '홍경래의 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농민들이 반란을 주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난이 전개되면서 평안도 기층사회가 성장하고 주민들 사이의 일체감이 강력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⁷⁾ 또한 홍경래의 난은 계급 갈등의 발현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사회정치적 구조, 평안도의 경제적 변화, 문화적 규범과 대중적 신앙 등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논의도 제출되었다.⁸⁾ 결과적으로 '홍경래의 난'이라는 명명은 다수의 농민이 참여하였으나 '농민 반란'이 아니었던, 특수한 민란의 전개과정과 더불어 홍경래라는 인물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반면,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평안도 농민전쟁'이라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⁹⁾ 조선후기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으로 인해 봉건제도의 모순이 드러났으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계급과 계층들이 투쟁에 가담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통사(상)』에 따르면 '평안도 농민전쟁'은 1808년에 일어난 '곡산농민폭동'이 불씨가 되어 평안도지역을 휩쓴 대규모의 농민전쟁이다. 평안도는 다른 지방에 비하여 상품화폐경제가 장성하여 자본주의적 관계가 발전하였기 때문에 계급관계가 더 첨예화되었고 이 계급적 모순과 평안도 지역 차별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들이 반봉건적인 투쟁에 결합되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시각에 의하면 '평안도 농민전쟁'은 농민 출신인 '홍경래'의 지휘에 의한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2)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4, 128~129면.

3) 위의 책, 151면.

4) 오수창, '19세기 초 평안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방민과 중앙관리의 인식과 정책', 『한국문화』, 제3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126면.

5)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를 일컬어 서북지역으로 통칭하는데 서북인들은 역사적으로도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에 비해 적잖은 차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관서지역(평안도)을 지시하지 않고 이 지역의 차별에 관해 언급할 때에는 서북지역인으로 쓴다.

6) 조선후기 평안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참조.

7) 오수창(2002), 위의 책.

8)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The Hong Kyongrae Rebellion of 1812*,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9)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594~605면.

관료들의 죄악상을 규탄하는 ‘인민의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홍경래의 영웅성 자체보다는 지배계급에 항거하는 투쟁의 양상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해석은 시대적 맥락과 담론적 구성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홍경래의 난에 대한 남북한 명명법의 차이는 곧 해방 이후 남북한 문화정치학의 전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특정한 시기에 ‘홍경래’를 문학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어떤 함의가 있을까. 남궁만의 <홍경래>에서 홍경래라는 영웅적 인물에 대한 조명과 평안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농민전쟁이라는 계급투쟁적 시각이 어떻게 직조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남궁만이 해방기에 창작한 <홍경래>(1947)를 두고 ‘홍경래의 난과,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재현하는 다양한 관점을 경유해야 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홍경래’를 ‘역적’에서 ‘영웅’ 혹은 ‘혁명가’로 재발견하고 재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다분히 근대적인 시각이라는 점이다. 둘째, 근대적인 시각으로 홍경래를 해석한 사학자, 언론인, 작가 등이 거의 대부분 평안도 출신이거나 평안도를 거점으로 활동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셋째, 남궁만은 평안도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계급운동을 한 작가였으며, 해방기에 쓴 그의 유일한 역사극이 ‘홍경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궁만은 평안도 강서군에서 출생하여 평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5세부터 평양고무농장에서 노동을 한 것,¹⁰⁾ 1934년 무렵에 평양에서 ‘신예술좌’¹¹⁾라는 극단을 조직하여 공연을 준비하다가 검거된 적이 있다는 사실,¹²⁾ 해방 후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선전부장(1946~1947)과 ‘북조선연극동맹’ 서기장(1947~1948)을 역임하였고 6.25 전쟁기 중군작가로 활동했

10) 남궁만, 『공산주의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225면.

11) 『동아일보』 1935년 10월 28일자 신문의 ‘신건설사건공판’ 기사에도 평양의 신예술좌에 대한 언급이 있다.

12) 한효, 『조선연극사 개요』, 국립출판사, 1956, 296면.

다는 사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1953~1958), 희곡창작사(1965) 등에서 활동한 것¹³⁾ 정도만 알려져 있다. 식민지 시기보다 해방 후의 작품 활동이나 행적이 더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해방 이전 연극사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계급 운동에 가담했지만 카프 중앙지부인 경성이 아니라 평양을 근거지로 활동했고 문단에서의 활동은 1936년 조선중앙일보에 희곡 <테릴사위>로 신춘문에 당선¹⁴⁾이 된 이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송영이 박세영과 함께 신인육성사업을 통해 발굴한 작가들 중 하나라는 기록을 참조하여 송영과의 교우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점 때문에 <홍경래>(1947)를 더욱 주목하게 한다. 노동 현장에서 시작된 남궁만의 극작술은 후일 유치진에게 인정받고 함세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¹⁵⁾로 향상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문학적 성취보다 관객 대중과 호흡한 공연의 감각을 통해 원숙해진 연극 활동은 원산에서 활동하던 박영호의 사례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방 이후 북한연극의 초석을 놓았던 작가라는 점에서 일제강점기 계급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남궁만의 작품을 바라보는 것 역시 유의미하리라 생각된다. 희곡 <홍경래>는 이 지점에서 음미해볼 대목이 많다. <홍경래>에는 평안도 지역 출신 작가의 (무)의식과 계급 운동에 대한 자각과 전망, 그리고 19세기 초엽의 조선(과거)과 해방 이후 다시 건설되어야 할 조선(미래)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교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13)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오정애·리용서, 『조선문학사 10 -해방후편(평화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204면;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1946년 3월 ‘북조선예술총동맹’과 ‘북조선연극인동맹’이 결성되었고 10월에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북조선연극동맹’으로 재조직 된다. 조선문학사 및 북한지역정보넷에 언급된 ‘북조선연극인동맹’은 ‘북조선연극동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이때 심사위원을 맡은 사람은 홍해성이었다. ‘현상모집 희곡선후인.남궁만씨 작, <테릴사위>에 대하여’, 『조선중앙일보』, 1936.1.30.

15) 이재명, 「남궁만 희곡작품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연극학』 제5권, 한국연극학회, 1993, 67면.

2. '혁명가 홍경래'의 근대적 발견

그누가記憶하라茶北洞에서 / 피물든옷을납고웨치는일을
定州城하로밤의지는달빛해 / 애쓰는그가슴이숫기된줄을¹⁶⁾

김소월이 쓴 시 중에 유일하게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시가 있다. 바로 <물마름>이라는 시이다. 이 시에는 남이장군과 홍경래를 기리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김소월은 정주 오산학교 출신으로 이돈화와 김억 등에게 배운 바 있다. 백석의 <정주성>과 함께 회자되는 이 시는 평안도 지역 문인, 역사학자, 언론인들에게 남아 있는 '정주라는 장소가 '무너진 성터'이면서 복원해야 할 공동체를 환기시키는 공간임을 암시해준다. 이승훈, 최남선, 이광수, 안창호, 김소월, 백석, 현상윤, 문일평 등을 배출한 서북지역의 특수성은 단지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로컬'이 아니라 '서도인 곧 평양중심의 지정학적 사상 계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차원으로 작용한다.¹⁷⁾ "서북이라는 장소는 조선이랄 수도 그렇다고 조선이 아니랄 수도 없는 변방의 사각지대로서 경계의 영역, 혹은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성의 영역으로 내적 비판과 변화의 욕구를 키운 공간이었던 것이다."¹⁸⁾ 서우학회(1906), 신민회(1907), 서북학회(1908) 등을 결정하고 민족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애국운동을 펼쳐나간 것 역시 서북지역 인사들로부터였다. 홍경래와 홍경래의 난에 대해 기록하거나 홍경래 이야기를 펴낸 최남선, 현상윤, 문일평, 이운재, 김도태 등이 서북지역 출신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순조실록 이후 홍경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16) 김소월, 「물마름」, 『조선문단』7, 1925.4, 46~48면.

17) 정주아,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1.

18) 위의 논문, 9면.

『임신평난록(壬申平亂錄)』과 『신미록(辛未錄)』과 같은 군담소설류의 서사를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중후반에 출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평난록』과 『신미록』은 홍경래를 역도로 규정한 저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신미록』에서는 우군척이 부각되고 관군과 홍경래 사이의 전투장면이 두드러진다.¹⁹⁾ 홍경래의 영웅적인 활약상이 두드러지는 서사는 1917년 新文館에서 간행된 『홍경래실기』이다.²⁰⁾ 최남선이 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에서 홍경래는 '영웅이자 평서대원군홍경래장군'이자 때를 잘못 만난 '선지자'로 묘사된다. 『홍경래실기』는 근대 초기 영웅전기소설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소설 속 홍경래는 당대 현실이 필요로 하는 영웅의 모습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러나 서장대에 있던 홍경래와 복장대에 있던 우군척이 도망가고 난 후 붙잡은 홍총각 등을 처참(處斬)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어서²¹⁾ 그 영웅성이 의심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한문본 『홍경래전』(규장각 소장본)은 홍경래의 영웅적 형상이 부각되면서 정주성이 함락되던 날 홍경래가 죽지 않고 성을 넘어 도망갔다는 '홍경래 불사설'이 처음 나타난 기록이다.²²⁾ '홍경래 불사설'은 1817년 전라도에서 채수영이, 1826년에는 청주에서 김치규가 펴뜨린 것으로 기록²³⁾되어 있고 정주 지방의 야담으로도 나타난다.

신문관 편 『홍경래실기』와 한문본 『홍경래전』은 역적으로 묘사되던 홍경래의 영웅성을 부각시킨 근대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홍경래를 영웅으로 홍경래의 난을 '실패한 혁명'으로 해석하는 관점에는 조선 시대, 즉 봉건 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시

19) 정환국, 「홍경래란을 바라보는 시선」, 『한국어문학연구』 제5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19~29면.

20) 『구할자본 고소설전집』17에 수록된 '홍경래실기'와 단행본 『홍경래실기』의 표지에는 南岳主人(최남선) 撰라고 그려져 있고, 편수 겸 발행인은 최창선으로 되어 있다.

21) 『홍경래실기』, 62~64면.

22) 정환국, 앞의 논문, 24~25면.

23)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통사(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605면.

대가 왔다는 낙관적 전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사실(史實)로서의 '홍경래의 난이 넘어서지 못한 평안도라는 지역성을 넘어 조선의 현실로 확장되는 것이었다.

1920년대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조인물약전'에 소개²⁴⁾된 홍경래는 전봉준과 함께 정치를 대표하는 인물로 평가²⁵⁾된다. 1924년 10월 11일에는 정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오산학교 출신 역사학자인 김도태가 시내 연지동 예배당에서 홍경래에 관한 강연을 개최한다는 기사²⁶⁾가 실린다. 1926년 9월 14일자 신문에는 홍경래의 기병지인 북장대 사진이, 1927년 7월 19일에는 홍경래 유적지를 탐방하는 '신미도탐승단모집' 광고²⁷⁾가 실리기도 한다. 1930년 최남선이 쓴 '조선역사강화'²⁸⁾에도 홍경래의 난이 전개된 과정이 소개된다. 오산학교 출신인 이윤재는 '신미혁명과 신미양란²⁹⁾'을 쓰고 1931년 8월에는 조선어강습에서 정주와 홍경래에 관해 소개³⁰⁾하였다. 1933년에는 문일평이 '민중혁명의 선구'라는 제하에 홍경래를 평하고 있는 글도 실린다.³¹⁾

특히 주목할 만한 글은 1931년 7월부터 연재한 현상윤의 『홍경래전』³²⁾이다. 현상윤은 “인권의 평등과 국정의 개혁을 위하여 궤기한” ‘풍운아 홍경래와 전봉준을 언급하면서 전봉준이 동학당이라는 기성단체의 힘을 빌려 일어난데 비해 홍경래는 순전히 “평지에서 독립으로 굴기”하였다는 점에서 “정의감과 능동력”이 더 예민하고 크다고 쓰고 있다. 또한 “우리

24) 혁암 김형식 抄, 『이조인물약전 71』, 『동아일보』, 1921.11.1.

25) 『동아일보』, 1921.11.4.

26) “시내통신”, 『동아일보』, 1924.10.11.

27) “신미도탐승단모집. 홍경래유적, 삼각봉 등대를 왕복 사일간. 7월 23일부터”, 『동아일보』, 1927.7.19.

28) 최남선 撰, 『조선역사강화 26, 제삼십사장』, 『동아일보』, 1930.2.9.

29) 이윤재, 『辛未革命과 辛未洋亂(1) -홍경래와 최란허』, 『동광』17, 1931.1.

30) “제 3회 조선어강습소식 7. 관서방면 강사 이윤재”, 『동아일보』, 1931.8.20.

31) 문일평, 『民衆革命의 先驅 平北大元帥洪景來』, 『조선일보』, 1933.6.30.

32) 『동아일보』, 1931.7.12~8.20. 이 중 2회분(7.15)은 검열로 삭제된 채 발행되었다.

가 충무공을 배우면 外患을 면할 것이나 홍경래를 배우면 內心の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현상윤은 『홍경래전』을 연재하면서 사실자료는 오랜 스승 평양 羅一鳳 선생의 구술과 기타 믿을 만한 향간의 口碑³³⁾와 陣中日記를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³⁴⁾ 역사에 대한 기술인만큼 홍경래 난의 결말에 대해서도 홍경래가 결국 관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물론, 죽은 것은 가짜 홍경래이며 진짜 홍경래는 달아나 어딘가에 살아 있다는 설을 모두 소개하고 있다.

현상윤의 『홍경래전』은 홍경래의 난에 대한 본격적이고 상세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남강 이승훈에게 배우고 최남선, 최린, 김도태 등과 3.1운동을 함께 준비한 현상윤은 잡지 ‘학지광’ 편집장을 역임³⁵⁾한 언론인이자 사학자였다. 또한 문일평은 와세다 대학 유학 시절에 이광수, 홍명희를 만난 인연으로 이광수가 조선일보 부사장을 하던 시절에 편집장을 맡아 조선일보에서 일했다.³⁶⁾ 이들 서북지역 지식인들은 정치적인 교류가 아니라 정서적인 동류의식³⁷⁾에 의해 움직이면서 홍경래와 같은, 지역(local)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이다. 이광수가 『무정』(1917)에서 영채의 아버지 박진사를 신미혁명 때 몰락한 서북의 전통적인 지식인상으로 그려낸 것을 상기해 본다면, 이들이 역사적 전통을 극복하는 바탕 위에서 현실을 변혁하고자 하는 이념을 가졌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³⁸⁾ 특히 현상윤의 관점에는 홍경래의 난이 서북인사에 대한 차별

33) 『동아일보』, 1931.7.18.

34) 『동아일보』, 1931.8.20.

35) 김기승, '현상윤과 3·1운동', 한국공자학회 편, 『기당 현상윤 연구』, 도서출판 한울, 2009, 55~89면.

36) 문일평, 이한수 역, 『문일평 1934년 -식민지 시대 한 지식인의 일기』, 살림, 2008.

37) 영남지역 역시 17세기 이후 중앙정치에서 소외되었으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춘 인 사들이 많았으며, 서북지역에 대한 차별이 종족에 대한 의식과 멸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던 영남과는 사정이 달랐다. 오수창, '조선후기 경상도·평안도 지역차별의 비교', 『역사비평』 제59호, 역사비평사, 2002 참조.

38) 물론, 서북 지역 문인들이 동일한 이상을 가지고 활동을 해나갔던 것은 아니다. 안창호, 주요한, 전영택, 이광수, 김동인 등의 지향과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논의는 정주

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서북인에 대한 차별과 그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홍경래가 일으킨 봉기는 당대 정치적 현실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의로운 행동이며 홍경래는 탁월한 '정치가'가 된다. 평안도 출신인 현상윤이 전봉준이나 이순신보다 홍경래를 높이 평가한 데에는 홍경래를 통해 서북인의 위상을 회복하고 서북지역 지식인들의 이상을 중앙에까지 전달하고자 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홍경래를 혁명가로 호명하면서 당대 현실의 모순을 파악하고 역사의식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려는 근대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서북지역 언론인들이 관계하던 신문 잡지 등 출판 미디어로 전달했다는 점을 통해 '홍경래'를 조선의 주류 역사에 편입시키고 이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한 의도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현상윤의 『홍경래전』이 연재될 당시는 윤백남의 『대도전』 연재가 끝나고, 이광수의 『이순신』이 연재(1931.6.26~1932.4.3)되던 시기였다. 평안도 지방의 역적이었던 홍경래는 아이러니하게도 조선(李朝)이 저문 후에야 (식민지) 조선의 의적이자 혁명가의 표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3. 남궁만의 <홍경래>와 해방기 북한 역사극

홍경래를 영웅으로 추앙하는 기록들은 많았지만 홍경래를 주인공으로 한 본격적인 문학작품(fiction)은 해방 이후에야 등장한다. 해방 이전에는 '김유산', '대원군', '장희빈' 등을 쓴 윤승환이 복면재(覆面子)라는 필명으로 쓴 역사소설 『만향』³⁹⁾에서 홍경래의 난이 등장하는 것 정도를 언급할 수 있다. 해방 이후에는 이명선이 쓴 『홍경래전』(1947)⁴¹⁾과 박중화의 『홍

경래』(1948~1949)⁴²⁾가 있고 홍경래는 이후 남북한 매체에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다루어지는 인물이 된다. 그 중에서도 남궁만의 <홍경래>를 주목하는 까닭은 남궁만의 희곡 <홍경래>가 '해방기'라는 시공간과 '북한'과 '평안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역사극'이라는 재현의 방식이 교직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남궁만은 해방 후, 즉 북한에서 '평화적민주건설시기'라고 불리는 시기의 대표적인 극작가로 언급되고 있다. 특히 그가 쓴 <복사꽃 필 때>(1946)와 <토성량 풍경>(1949), <하의도>(1946/1949)⁴³⁾는 토지개혁과 생활 투쟁, 집단주의정신, 반미구국투쟁 등을 사상예술적으로 잘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된다.⁴⁴⁾ <홍경래>는 남궁만이 쓴 유일한 역사극으로 김태진의 <리순신 장군>과 함께 '민족의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인민의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⁴⁵⁾

해방 직후 평양에는 소수의 연극인들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할 역량은 갖추어져 있지 못했는데 그 중 남궁만을 비롯한 주영섭, 한태천 등이 평양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이라 할

41) 이명선, 『홍경래전』, 朝金聯版, 1947.

42) 박중화, 『홍경래』, 『동아일보』, 1948.10.1~1949.8.24. 273회 연재

43)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문학사』에서 해방기 남궁만의 희곡에 대해 기술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작품이 <복사꽃 필 때>와 <하의도>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과학출판사(1994)에서 나온 『조선문학사-해방 후편』에 <하의도>는 1949년이라고 년도를 표기하고 있지만 <하의도>가 수록된 『남궁만희곡집』은 1946년에 출간되었다. 남궁만의 <홍경래>는 이 책에서 김태진의 <리순신 장군>과 함께 언급되면서 1946년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역시 아마도 오기(誤記)가 아닐까 한다. 『조선문학사-해방 후편』은 김태진의 <리순신 장군>과 조령출의 <리순신 장군>의 내용을 혼동하여 서술하고 있는 등 독해에 주의를 요한다. 현재 파악된 남궁만의 <홍경래>는 1947년에 출간인재명, 『해방기 남북한 극문학 선집』, 평민사, 2012; 이석만, 『해방기 연극연구』, 태학사, 1996년 것이지만 창작년도를 1946년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문학예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상한 리얼리즘의 전개 과정을 염두에 두었을 때 1947년 초반에 창작 발표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44)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앞의 책, 189~217면.

45) 위의 책, 222~231면.

아, 앞의 논문 참조.

39) 현상윤, 앞의 글, 『동아일보』, 1931.7.12.

40) 『동아일보』, 1937년 12월 1일부터 1938년 7월 19일까지 210회 연재

수 있다. 남궁만은 ‘평양예술문화협회’와 ‘평양지구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을 거치며 이듬해 결성된 ‘북조선예술총연맹’⁴⁶⁾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⁴⁷⁾ 해방기 진보적 연극 활동에 임하며 정세변화에 따라 윤택했던 많은 예술인과 달리 남궁만은 재북(在北) 예술인으로서 평양을 거점으로 활동하였다. 1946년 10월 평양에서 재조직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과 ‘북조선연극동맹’에서 활동하면서 해방기 남궁만은 동시,⁴⁸⁾ 소설, 희곡, 수필 등 다방면의 창작열을 희곡 창작으로 수렴하게 된다. 북문예총에서의 활동 이력은 남궁만이 1947년 이후 평화건설시기 북한문학의 창작방법으로 공식화된 ‘고상한 리얼리즘’에 입각하여 작품을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1947년 신년사에서 ‘고상한’ 작품 생산이 요구⁴⁹⁾된 이래, 북문예총에서 ‘고상한 사상과 ‘고상한 예술성’을 천명한 뒤 3월 28일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제 29차 회의’의 결정서에서 ‘고상한 사실주의’ 창작방법이 공식화⁵⁰⁾ 되었다. 이 창작방법론은 해방기 북한 문학의 주인공 형상화와 혁명적 낭만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고상한’이라는 수식어는 ‘쏘비에트 문학’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보이는 ‘고상한’이라는 수식어는 그러나 “조국과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민족적 품성을 지닌 새로

46) ‘북조선예술총연맹결성’, 『동아일보』, 1946.4.15.

47) 박영정, 『연극』,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저, 『한국현대예술사대계-해방기(연극편)』, 시공사, 2005, 27면.

48) 남궁만의 본명인 양춘석으로 ‘동요시인사 편집검발행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발견된다. ‘동요시인사창립’, 『동아일보』, 1932.2.22.

49) 『자료 32 - 신년을 맞이하여 전국인민에게 고향, 김준엽 편, 『북한연구자료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문학예술인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1년동안의 성과를 공고히하며 새해에 진보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적 발명과 기술적 향상을 보장할 것이며 문학 예술인들은 민주개혁의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앞으로 추진시키는 사상적 정치적 예술적으로 고상한 작품을 생산할 것이다.”

50) 오태호, ‘해방기 고상한 리얼리즘 전개과정’, 『우리어문연구』 제46집, 우리어문학회, 2013, 322면. 이 논문에서는 북문예총의 기관지에 나타난 창작방법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다. 고상한 리얼리즘에 관한 부분은 이 논문과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학의 양식』, 도서출판 경진, 2011을 참조하였다.

운 조선사람의 형상화⁵¹⁾로 파악될 수 있다. ‘긍정적 인물의 형상화와 ‘집단적 정신’이 강조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겨 말하자면, <홍경래>에는 이와 같은 ‘고상한 리얼리즘’ 창작방법론의 전신이 발견되며 그러한 특징은 6.25 이후 강화되는 당성과 계급적 원칙에 의한 도식적이고 정치적인 창작에 비해 비교적 작가의 창작의도가 더 반영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남궁만의 <홍경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방기에 소환되는 과거의 역사 재해석이라는 담론적 구성의 양상뿐만 아니라 해방기 북한에서 요구하는 인간상과 주제 구현의 의미를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는 ‘왜 홍경래인가하는 작가적 선택과 ‘어떻게 홍경래의 난을 해석하고 재현하는가하는 문화정치적 요구가 조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해방기 역사극은 남과 북 공히 민족국가 건설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멜로드라마의 과도한 감성선과 강렬한 파토스를 담아내는 동시에 역사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⁵²⁾ 해방기 역사극은 같은 조선시대를 소재로 삼더라도 망국사보다는 항쟁사를 통해 의식을 각성시키고자 하며 특히 좌익계열의 경우 항일 혁명 운동을 형상화시키는 작품 창작이 두드러진다.⁵³⁾ 실제로 해방기에는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 말할 수 없었던 과거의 전통과 역사를 복원하는 시도가 두드러지며 그렇게 창작된 역사극에 대한 우려와 기대⁵⁴⁾가 뒤섞여 있는 형국이었다.

해방기 북한 극문학에서 역사를 소재로 한 희곡은 남한에 비해 수적으로도 적은 편이고 문학사에서 <홍경래>보다 <리순신 장군>이 훨씬

51) 안막, 『민족문화와 민족예술 건설의 고상한 수준을 위하여』, 『문화전선』5, 1947, 2~16면.

52) 전지니, 『1940년대 희곡 연구-역사·지정학·청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113면.

53) 이석만, 앞의 책, 119~122면.

54) 이태우, 『신화와 사극의 유행』, 『경향신문』, 1946.12.12.

많이 언급되는 것이 사실이다. <홍경래>⁵⁵⁾와 <리순신 장군>은 1948년 같은 해에 평양시립극장에서 공연되었으며⁵⁶⁾ 토지 개혁이나 반봉건 애국 투쟁 이외에 '민족 고전과 역사극'이라는 새로운 레퍼토리의 개발이자 의미 있는 시도로 기록된다. 이순신은 민족 영웅으로서의 활약상이 뚜렷하며 임진왜란이라는 사건을 다각도로 초점화 하여 공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방 후 남북한 공히 단골 소재였다. 김태진은 월북 전에 <이순신>과 <임진왜란>을 공연하고 월북 후 <리순신 장군>을 공연⁵⁷⁾하였는데 특히 <리순신 장군>은 인민성과 애국주의적 사상, 그리고 당대의 부패한 봉건정치를 폭로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해방기 북한의 민족연극 구상의 중요한 자리를 점한다. 그에 비해 <홍경래>는 <리순신 전쟁> 만큼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⁵⁸⁾ 이는 <리순신 장군>과 <홍경래> 작품 내적인 수준 차이 때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이순신과 홍경래의 위상에 관한 차이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 즉 남궁만 자신이 평안도 출신이라는 사실⁵⁹⁾은 그가 많은 역사적 인물 중에서 왜 '홍경래'를 택하게 되었는가에

55) 주영섭 연출로 공연되었으며 주연 배우는 1960년대에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리제덕(1919~1991)이었다. 리제덕은 1955년에 공연된 <리순신 장군>의 주인공을 맡기도 하였다.
 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복이후 50년 북한문화예술 소사', 『문예연감』 제20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6.
 문예연감에는 두 작품을 공연한 극장을 '시민예술극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인민예술극장'을 뜻하는 듯하다. '인민예술극장'은 1948년에 '평양시립극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리령, 『빛나는 우리예술』, 조선예술사, 1960, 22면).
 57) 김태진의 <이순신>, <임진왜란>, <리순신 장군> 창작과 공연에 관해서는 전지니, 「우상에 갇힌 민족연극의 구상: 김태진의 <리순신 장군>(1948)에 대한 소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문경연, '월북예술인 김태진과 발굴희곡 <임진왜란>(1946)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제40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참조.
 58) 가령 김일성종합대학용 '조선문학사'에 <리순신 장군>은 언급되어 있으나 <홍경래>는 등장하지 않는 등, 문학사를 보다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경우 <홍경래>보다 <리순신 장군>을 대표적인 역사극으로 꼽는 경향이 보인다.
 59) <테릴사위>나 <산막>과 같은 작품에서도 평양 혹은 평안도는 현실의 억압을 피해 달아날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한 단서가 된다. 해방기 진보적 리얼리즘·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개 과정을 일제 강점기 카프문학의 영향력과 연계성을 놓고 볼 때, 평양이나 원산 등 북한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사람들보다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월북문인/예술가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북 작가이자 노동자 출신 작가였던 남궁만에게 '홍경래'는 평안도 지역 '저항지식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혁명가이자, 구시대의 악습을 버리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영웅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해방 이후의 혼란상을 타개하고 새 국가를 건설할 영웅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홍경래는 이순신만큼이나 파급력이 있는 혁명가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순신이 충직하면서도 올곧은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홍경래에는 지배 계급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항거의식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계급적이며 민중적이다. 게다가 홍경래를 통해 서북인으로서의 콤플렉스와 자부심을 동시에 드러냈던 다른 문인들의(무)의식이 평양을 근거지로 하여 카프 중앙지부보다 더 많은 실제적 활동을 했던 남궁만에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김택연 정말 이럴수도 없고 저럴수도 없고…… 대체 어떻게면 좋은가
홍이팔 그 미련한 꿈에서 깨이게 사내답게 결패를 내이는 게 어때?
김택연 미련한 꿈이라니?
홍이팔 그러면 자네가 장원급제를 하여서 어엿한 벼슬아치가 될 듯 싶은가
김택연 그렇지만 힘껏 적공은 해뵈야지
홍이팔 자네가 만일 도세를 하는 때의 심대감의 사위로 들어갔다면 벌써 대과급제를 하였을 것일세 그러나 낙향한 딸을 얻은 상놈의 자식인걸 알아야지 않을까
김택연 그렇다구 청운에 붓친 대장부의 뜻을 굽히는 것두 어리석은 일이겠지

홍이팔 자네는 그 마음자리부터 곳치게. 심대감은 지금 조정에서 도세하는 무리들과 싸우다가 짓기 때문에 역적이란 누명을 쓰고 비명에 죽었고 심지어 그 달이며 사돈의 팔촌까지도 능지처참을 하라는 어명이 나리지 않았나 만일 이 싸움에서 심대감이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고? 반대로 지금 도세하는 무리들이 몰살을 당하였을 게 안인가 오매에 사뭇친 이놈의 당쟁! 노론 소론 서인이니 남인이니 해서 벼슬아치들이 세도다툼으로 일삼는 당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사는 바로잡히지 못할 것! 어차피 자네가 벼슬자리를 별자는 것도 이 나라의 정사를 피로 물들이고 그 자리 우에서 아가씨의 원수를 갚으며 영화를 기리 하자는 게 아니겠나 (207~208)

<홍경래>의 1막에는 홍경래와 홍이팔, 김택연, 우군칙 등이 만나는 계기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곧 훗날에 이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설명되는 것이기도 하다. 인용문에서와 같이 김택연은 과거 급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홍이팔 역시 세도가의 무리들에 대해 비판하는 등, 평안도 차별에 대한 인식이 대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차별’에만 있지 않았으며 여기에 정치경제적 문제가 결부되어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홍경래의 난, 곧 평안도 농민전쟁이었다. 극적 형상화 방식을 염두에 둔다면, 농민에 대한 착취를 강조하여 민중 봉기의 인과 관계를 마련하는 것이 극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경래>에서는 김택연과 홍이팔 그리고 홍경래를 좌절시킨 서북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촉발된 것이 홍경래의 난이며 농민들이 가담하는 것은 그 이후의 일로 전개된다.

북한 문학사에서는 남궁만의 <홍경래>에 대해 “작가는 희곡에서 우선 반인민적인 이조 봉건 지배층의 부패한 통치 체도를 폭로하였으며 압제

와 착취를 반대하여 일어난 인민들의 영웅주의를 묘사하였다.”라고 쓰고 있다.⁶⁰⁾ 또 “당파싸움으로 어지러워진 당시 봉건통치체제를 뒤집어엎을 의로운 뜻을 품고 나선 홍경래가 뜻을 같이할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전반부가 “평안도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된 사회력사적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⁶¹⁾ 북한 문학사 서술에서 <홍경래>는 농민전쟁의 준비와 진행과정, 전쟁 참가자들의 사상적 정신적 면모와 그 성과를 드러낸 작품처럼 묘사되지만 실상은 그와 다르다.

조선후기의 농민들이 계급의식이 투철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⁶²⁾처럼 <홍경래>에 묘사된 농민들은 의식적으로 각성되어 있다기보다 봉기 이후에 펼쳐진 새로운 세상과 홍경래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인물들로 나타난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빌면 잡혀간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이 지역에 금광이 개발된다는 말을 ‘믿고’ 다복동에 모여 무기를 들고 싸우는, 평범한 백성들이다. 오히려 이 믿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홍경래의 죽음이라는 최후의 비장미가 두드러진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평안도 지역은 정감록이 유행하는 등 민간신앙에 대한 믿음이 강했고 홍경래 역시 주역과 풍수에 능한 자로 평가되고 있다. 해방 후 정감록이 유행하면서 미신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⁶³⁾을 상기해 본다면, 해방기 혁명을 꿈꾸었던 자들의 믿음 역시 당시 백성들의 믿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감할 수 있다.

<홍경래>에서 홍경래는 ‘최도사로 불리는 ‘풍수쟁이’로 등장한다. 이 부분을 첨가한 것은 홍경래의 眞人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선전 선동의 효과는 바로 이 ‘믿음’에 기반 한 것이다. <홍경래>에서 최도사 홍경래를 ‘믿고’ 농민들이 봉기하는 것은 봉건 체제에 대한 반발심이 끊

60) 사회과학원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8, 231면.

6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앞의 책, 225~226면.

62) Sun Joo Kim, op.cit.

63)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출판계의 1년』, 『조선해방1년사』, 문우인서관, 1946, 382~383면.

어오른 결과이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연극 생산은 요원한 채, 탄압에 의해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던⁶⁴⁾ 좌익 연극인들에게 해방기 북한은 이러한 ‘믿음이 작동하여 꺾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공간이었다. 남궁만은 그 청사진을 홍경래가 꿈꾸었던 새로운 조선의 모습에 투영시켜 나타내었다.

우군칙, 김창시, 홍이팔(홍총각), 김택연 등 홍경래를 적극적으로 돕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홍경래를 암살하려고 한 김대린과 이인배까지 <홍경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심랑과 월설과 같은 여성 인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인물들이다. 아마도 현상운의 『홍경래전』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주요 사건 전개 역시 주제를 구현하려는 목적보다 역사적 사실을 따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4막에서 성 밖의 적진에 소란하도록 가무를 베푸는 책략을 쓰는 대목에서 ‘수심가의 전래를 살피며 ‘현상운의 주석을 달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⁶⁵⁾ 남궁만은 <홍경래>를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창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북한의 역사극이 추구하던 바였다. 리령은 북한의 민족 고전극 <심청전>(1947, 태장춘, 김일용, 4막 6장, 국립극장)과 역사극 <리순진 장군>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서 “수상동지는 인민들이 <심청전>을 비롯한 민족 고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인민들의 전통적인 생활감정과 민족적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고전의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다면 그것은 결국 고전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을 약화시키는 결과 밖에 가져올 수 없다”⁶⁶⁾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민족 고전과 역사를 소재로 창작을 하는 목적은 전통의 계승과 민족의 애국심을 환기시키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작가의 상상이 가미되는 것보다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라는 것이다. 당시 북한의 연극은 고상한 리얼리즘,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완성하기 위한 단계로 연출과 연기의 방식에 있어서도 (일제 잔재인) 신파적인 수법을 철저히 배격하고 사실주의 연극을 창조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⁶⁷⁾

남궁만의 <홍경래>가 홍경래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하는 정치적 우상화보다 역사적 사건의 사실성을 토대로 창작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조명되어야 한다. 해방기 박종화의 장편소설 『홍경래』(1946~1949)는 홍경래의 소년시절부터 다루는 등 허구적인 상상력을 가미하여 인물들을 창조하고 그 인물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일종의 낭만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소설과 희곡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작가 박종화 특유의 낭만적 필체가 두드러진다. 홍경래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형상화에 있어서도 과도한 영웅성이 발견되는, 작가의 창작의도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평안도 다북동이 이상향에 가까운 따뜻한 고향마을로 형상화 되어 있고 홍경래 역시 이상화된 영웅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등 평안도 지역의 문제와 농민들이 직면한 현실을 역사적으로 다루려는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홍경래의 난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농민군을 폭도로 인식하는 관군의 시각에서 전투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서 역사인식의 투철함보다는 인물 묘사와 장면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동시기 남북한에서 ‘홍경래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공통된 지점 이외에 두 작품의 친연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박종화의 『홍경래』는 1946년에서 1949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동아일보에 연재된 소설이었다는 점에서 해방기 역사소설에 나타난 대중성의 중요한 한 현상을 짚어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남궁만의 <홍경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에 두고 있으면서도 인민성에 대한 긍정으로 무장한 해방기 북한의 고상한 리얼리즘의 전신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다르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64) ‘장총각고시에 대한 각계의 파문심대, 『경향신문』, 1947.2.4.

65) 이재명 편, 『해방기 남북한 극문학 선집』, 평민사, 2012, 274면.

66) 리령, 앞의 책, 42면.

67) 김정수, 『해방기 북한연극의 공연미학』, 『공연문화연구』 제20집, 공연문화학회, 2010.

남궁만은 등단작부터 거의 당대의 현실과 체험적 진실을 다루는 작품들을 썼다. 현장 감각을 익힌 작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소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1947년에 쓴 글⁶⁸⁾을 보면 그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소상히 잘 기억/기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남궁만은 이 글에서 제사공장의 여직공들이 몇 명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계가 돌아가는지, 일체말기에 착취당했던 노동력이 지금 얼마나 큰 증산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실제 여공들의 입을 빌어 이야기하고 있다. 1947년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면서 조선사회가 남북을 아우르는 통일된 국가건설의 이상에서 벗어나 38선을 경계로 새로운 내부를 만들어가는 시기이자 북한 문학이 '고상한 리얼리즘'을 구체화하면서 문학과 정치의 간극을 좁혀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문학적 주제의 형상화에 있어서도 남북을 모두 아우르는 조선민족이라는 지향점을 벗어나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문단적 특수성이 고려되기 시작한다.⁶⁹⁾ 『조선문학』은 1946년 7월부터 북한문학의 이념을 대변하던 『문화전선』이 중단된 이후에 창간된 잡지이다. 남궁만의 이 기록은 평안도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활동했던 노동자-작가가 해방 이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힘을 건강하고 낙관적인 노동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방기에 쓴 남궁만의 희곡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인물의 형상화와 낭만주의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고상한 리얼리즘'의 계열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홍경래>에 나타난 주인공의 영웅적 성격 역시 인민성에 바탕을 둔 대중주의, 즉 "인민대중의 번영과 행복 속에서 자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는 긍정적 주인공의 혁명적 낙관성"⁷⁰⁾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민은 사회발전에 진보적 역할을 하는 계급과 계층을 포괄하는,

68) 남궁만, 『現地報告文-製糸工場記』, 『조선문학』 창간호, 1947.

69) 이민영, 「1947년 남북 문단과 이념적 지형도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70) 유연주, 「해방기 북한연극의 대중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81~82면.

역사적 계급적 의미가 강조된 개념이다.⁷¹⁾ 1949년에 쓴 「단막극은 어떻게 쓰는가」⁷²⁾에는 작가 남궁만의 극작술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드러난다. 이 글에는 작품의 정신인 '주체의 사상성', '인물의 설정'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이리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환경'과 '조건'을 구비해야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무대 밖의 사건과 복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등장인물의 대사는 인물이 처한 감정의 진실한 표현이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홍경래>에서 홍경래가 지닌 영웅적인 면모는 전략에 능하고 무에 도통한 모습만이 아니다. 홍경래는 봉기할 날을 두고 갈등하는 우군칙과 김창시를 모두 설득할 만한 강직한 소신을 지녔으며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에 머물렀을 때 만난 월설에게 따뜻하고 솔직한 말을 하는 등 자상한 성격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홍경래는 힘과 지력과 권력뿐만 아니라 믿을만한 인품까지 갖춘 자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로 인해 홍경래가 꿈꾼 혁명은 비록 실패했으나, 그 실패한 혁명이 남긴 힘의 지속성에 대해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든다. 혁명이란 성공과 실패의 유무를 떠나 변혁의 의지가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눈앞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홍경래>의 결말은 홍경래가 관군의 총에 맞고 죽는 역사적 기록상의 결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홍경래 불사살'을 따르지 않고 월설이 홍경래의 죽음을 목격하는 마지막 장면 끝에 '홍경래군의 우렁찬 군가가 들려오는 듯한 환각이 일면서' 끝나는 이 장면은 일견 비극적이지만 '가치 있는 죽음' 그 자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극적 효과가 두드러진다.

남궁만의 이러한 극작술과 해방기 북한의 창작방법론 전개과정을 외면한 채, 홍경래의 영웅성을 부각시킨 점을 들어 김일성이라는 영웅에 대한 암시⁷³⁾로만 읽어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북한 문학사에서 영웅적인

71) 한성훈, 『전쟁과 인민』, 돌베개, 2012, 31면.

72) 남궁만, 「단막극은 어떻게 쓰는가」, 『로동자』, 1949.3, 58~64면.

인물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지는 것은 해방 직후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던 것이었다. 평화적건설시기의 주인공은 고상하고 긍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며 ‘인민의 힘’, ‘집단적 정체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형이어야 했던 것이다. 게다가 그와 같은 설명 방식으로는 1955년에 남궁만이 쓴 소설 『홍경래』⁷⁴⁾에서의 영웅 홍경래를 설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1947년의 홍경래와 1955년의 홍경래는 어떻게 같고 또 다른가. 적어도 1947년의 <홍경래>는 역사적 기록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창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이거나(현상윤) 상민 출신(문일평)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1947년의 희곡에서 홍경래는 몰락한 양반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1955년의 홍경래는 ‘상놈의 자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홍경래를 소재로 한 다른 작품들과도 매우 상이한 내용이다. 이 작품에서 소년기의 홍경래는 거의 양반 계급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다. 남궁만의 소설 『홍경래』는 ‘왕조전복’을 위해 민중혁명을 피하는 홍경래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⁷⁵⁾ 같은 소재를 두고 전혀 다른 두 작품을 쓴 것은 아마도 해방기,혁명을 통해 새국가를 건설할 가능성의 시간과 전쟁 이후-통치 체제의 확립을 위한 정치적인 시간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6.25 전쟁 이후 북한의 그림자가 소설 『홍경래』에 깊게 배어 있다. 소설은 홍경래의 일방적인 승리만을 보여주고 있으며 홍경래의 마지막 유언은 북방(백두산)으로 가라는 것이었다.⁷⁶⁾ 이 결말은 실패한 혁명가를 통해 ‘낭만적 이상을 피한 1947년의 시점이 아니라 전쟁 이후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이상’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암시한다.

73) 김향, 「해방 직후 남궁만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특성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74) 남궁만, 『홍경래』, 평양시 국립출판사, 1955.

75) 민현기, 「『홍경래』 소재 남·북한 역사소설 비교 연구」, 『어문학』 제78집, 한국어문학회, 2002, 288~291면.

76) 위의 글, 290면.

가무는 가무대로 소음은 소음대로 계속한다

성벽에는 군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긴 사이

홍경래 (싸움에는 아주 무관심한 듯 가무에만 흥겨워 앉았다가 이윽고 검무 끝날 무렵을 해서 댕돌을 내려서며 칼을 뽑아 기녀들과 바꾸어 한층 더 용장한 검무를 시작한다)

긴 사이

홍이팔 (급히 등장) 녹천군 홍이팔 전갈하오 북문진은 우장군이 선봉이 되어 순무대진을 일거에 무찔러 황황히 달어나는 적병을 모조리 베이고 있사오며 동문진 김택연군 역시 양익으로 포위하며 적군을 보기 좋게 진멸중이오며

홍경래 (검무는 그대로 구비돌다)

홍경래 의병진은?

홍이팔 의병진은 제일 먼저 뚫어 졌소이다 역시 오합지중이라 적수가 안되는 듯 지금 알알이 골라서 베이는 듯한 동정이옵니다

홍경래 그 놈의 수괴를 잡아야 하오

홍이팔 그리고 동남진 또한 양소유 윤후검 양진이 동남으로 잘어 올려서 적진을 무찌르는 중이옵니다

홍경래 장하오 그러나 우장군이 걱정이오 아무튼 적진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하되 전세가 어지간하면 회군토록 하시오

홍이팔 네! (퇴장)

춤은 더욱 고조되어 날려 들어 기둥에 박히는 살을 빼어버리는 것으로 홍의 춤이 끝나면서 기녀들 홍의 의기를 받은 용장한 검무가 다시 벌어진 다

긴 사이

총소리 등은 점차로 사라져간다

이윽고 검무는 끝나며 기녀들 열을 지어 흥을 향해 읊한다 (274~275)

해방기 희곡 <홍경래>에서 송림전에서 패배한 후 정주성에 갇힌 신세가 된 홍경래가 검무를 추는 장면은 전쟁에 임하는 인간의 절망적 몸부림과 패배를 앞둔 장군의 심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그야말로 연극적인 장면이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게 했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홍경래는 관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되지만 희곡 속의 홍경래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전투 장면과 같은 스펙터클과는 달리 관객대중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정서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적어도 1947년의 남궁만에게 <홍경래>는 그 자신의 지리적 역사적 뿌리와 전통을 발견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평안도의 영웅 '홍경래'를 재현함으로써 해방기의 역사적 전망을 드러낼 수 있었던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1955년에 쓴 소설이 '홍경래'에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 희곡에서는 역사적 사건에 가담했던 거의 모든 인물들이 골고루 제목소리를 내고 있다. 1947년, 남궁만의 꿈은 근대 초기 서북인들이 그려내고자 했던 이상적인 공동체와 맞닿아 있었으며 홍경래가 꿈꾼 혁명을 통해 그 이상적 공동체를 구체화해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4. 혁명, 전쟁 그리고 새로운 국가

해방기 역사극은 과거 역사와 기억의 복원이라는 점에서도 의미 깊지만 역사적 사건 속에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의 시공간적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2차 대전 종식 후에도 식민지의 기억과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말소시키지 못한 채 각기 다

른 '민족'을 구상해야 했던 남과 북은 역사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평안도와 서북지역은 현재 북한의 영토이지만 한민족의 공통된 기억과 경험 그리고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다. 그러나 서북지역은 거의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활동한 사람들에 의해 재발견되고 기록되는 문화적 공간이기도 했다. 해방기에 창작된 남궁만의 <홍경래>는 말하자면 해방기에 새롭게 발견된 역사적 인물의 활약을 다룬 극이 아니라 근대 이후 발견된 홍경래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남궁만은 평안도 지역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전쟁기를 거치면서 계속 북한에서 활동한 작가로 최근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작가이다. 역사극 <홍경래>는 그의 사상적 기반이 지역적 기반과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홍경래의 난이 보여준 혁명에의 힘이 해방기 현실에 환기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홍경래의 이상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혁명적 정치관은 중요하게 기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방기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했던 북한은 일제 잔재를 소탕하고 새로운 조선을 건설하기 위해 진보적이며 역사적인 계급인 '인민'을 역사발전의 주체로 상정한다. 해방기 북한의 역사극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하나의 위대한 영웅을 주조했다기보다는 영웅적이고 혁명적인 인물이 어떻게 '집단 주체', '전체로서의 인민'을 견인해나가는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남궁만의 <홍경래>는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면서 해방기의 역사인식과 계급의식을 고상한 리얼리즘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해방기를 정의 내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홍경래를 둘러싼 역사 해석의 추이를 살펴본 후에 떠오른 생각은 해방기는 '혁명과 전쟁 사이의 시공간'이라는 것이다. 해방기에는 같은 기표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기의를 거느리는 개념이 많은 시기였다. 민족주의와 국가, 혁명

과 영웅 등에 대한 청사진이 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혁명과 전쟁 사이의 들끓는 시공간 속에서 해방기 역사극은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고 체제를 전복시키기도 하면서 과거 안에서 끊임없이 미래로 향하고 있었다. 역사를 '역사화'하는 대신 사건으로 발생시키는 것, 해방기 역사극의 가능성은 거기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순조실록 15권

남궁만, <홍경래>(이재명 편, 『해방기 남북한 극문학 선집』, 평민사, 2012).

남궁만, 『공산주의자』,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남궁만, 「단막극은 어떻게 쓰는가」, 『로동자』, 1949.3.

현상윤, 『홍경래전』 『동아일보』, 1931.7.12~8.20.

김소월, 「물마름」, 『조선문단』 7, 1925.4.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조선문학』, 『문화전선』

2. 단행본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4.

김기승, 「현상윤과 3·1운동」, 한국공자학회 편, 『기당 현상윤 연구』, 도서출판 한울, 2009.

김준엽 편, 『북한연구자료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0.

남원진, 『이야기의 힘과 근대 미달의 양식』, 도서출판 경진, 2011.

리 령, 『빛나는 우리예술』, 조선예술사, 1960.

문일평, 이한수 역, 『문일평 1934년 -식민지 시대 한 지식인의 일기』, 살림, 2008.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통사(상)』,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7.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조선문학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오정애 · 리용서, 『조선문학사 10 -해방후편(평화

적민주건설시기』, 사회과학출판사, 1994.

오수창, 『조선후기 평안도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002.

이명선, 『홍경래전』, 朝金聯版, 1947.

이석만, 『해방기 연극연구』, 태학사, 1996.

최남선, 『홍경래실기』, 신문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복이후 50년 북한문화예술 소사」, 『문예연감』 제20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6.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연극편』, 시공사, 2005.

한성훈, 『전쟁과 인민』, 돌베개, 2012.

한 효, 『조선연극사 개요』, 국립출판사, 1956.

Sun Joo Kim, *Marginality and Subversion in Korea: The Hong Kyongnae Rebellion of 1812*,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7.

3. 논문

김정수, 「해방기 북한연극의 공연미학」, 『공연문화연구』 제20집, 공연문화학회, 2010.

김 향, 「해방 직후 남궁만 희곡에서 구현되는 멜로드라마적 특성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문경연, 「월북예술인 김태진과 발굴희곡 <임진왜란>(1946) 고찰」, 『한국극예술연구』 제40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민현기, 「『홍경래』 소재 남·북한 역사소설 비교 연구」, 『어문학』 제78집, 한국어문학회, 2002.

오수창, 「조선후기 경상도 · 평안도 지역차별의 비교」, 『역사비평』 제59호, 역사비평사, 2002.

_____, 「19세기 초 평안도 사회문제에 대한 지방민과 중앙관리의 인식과 정책」, 『한국문화』 제36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5.

오태호, 「해방기 고상한 리얼리즘 전개과정」, 『우리어문연구』 제46집, 우리어문학회, 2013.

유연주, 「해방기 북한연극의 대중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4.

이민영, 「1947년 남북 문단과 이념적 지형도의 형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39집, 한국현대문학회, 2013.

이재명, 「남궁만 희곡작품에 대한 분석적 연구」, 『한국연극학』 제5권, 한국연극학회, 1993.

전지니, 「1940년대 희곡 연구-역사·지정학·청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 「우상에 갇힌 민족연극의 구상: 김태진의 <리순신 장군>(1948)에 대한 소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정주아,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문과 박사학위논문, 2011.

정환국, 「홍경래란을 바라보는 시선」, 『한국어문학연구』 제55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0.

Abstract

The Two Joseons(朝鮮), Between the Revolution and the War
 -Before and after Nam Gungman's <Hong Kyongnae>(1947)

Yang, Geun-ae

<Hong Kyongnae>, a historical drama written by Nam Gungman, describes the historical prospect after the independence from Japan through a revolution of some past figures. This paper examines recall matters of historical figures and events according to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by focusing on the fact that 'Hong Kyongnae', a figure and 'The Hong Kyongnae Rebellion of 1812', an event were rediscovered/reinterpreted after the modern times. It is noted that 'Hong Kyongnae' was often represented by writers from Pyeongan-do or the north-western districts which were also bases of the Rebellion. Nam Gungman, who was also born in Pyeongan-do, created <Hong Kyongnae> with a specific intention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Nam Gungman's <Hong Kyongnae>, a historical drama written before the system of North Korea was not yet established, exhibits some evidences that he strived to investigate historical events by referencing to 『Hong Kyongnae Jeon』 of Hyeon Sangyun, which was published serially in Dong-A Ilbo in 1931. Different from the historical drama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ose during the Liberalization period engaged the history of struggle and resistance, and thus, the revolutionary face of 'Hong Kyongnae' also emerged as an important object on which desires of men of the theater belonging to the left wing line could be projected. Given that the 'Hong Kyongnae' of Nam Gungman was not a heroic figure like Yi Sun-sin, but a failed revolutionist, an another ideal was discovered and it might be a precursor of the

'noble realism' of North Korean culture realized after 1947. <Hong Kyongnae> may be regarded as a drama includes the objective view interpreting the history and the ideal of building a new nation because many representations of Hong Kyongnae after the Korean War highlighted an imaginative fiction rather than a reference to historical facts, and was inclined to excessively exposure to heroism for popular revolution.

Key words : Hong Kyongnae, Nam Gungman, Hyeon Sangyun, Pyeongan-do, liberalization period historical drama, noble realism

접수일: 2014년 7월 31일

심사기간: 2014년 8월 9일~8월 24일

게재결정: 2014년 8월 29일